

소치올림픽 태극전사 최대 76명 출전한다

‘메달밭’은 빙상... 봅슬레이 전종목 출전권 따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얼음과 눈 위를 누빌 한국 선수단의 운과 이 드러나고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 출전한 48명의 선수단 숫자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인 67명 내외가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등 썰매 종목과 스키 종목은 이날 중순까지 치른 경기 결과를 종합해 20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다. 하지만 스키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는 사실상 출전권의 운과 이 드러났다.

한국 선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역시 ‘메달밭’인 빙상이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5명, 쇼트트랙에서 10명, 피겨스케이팅에서 3명의 출전이 확정됐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서울시청), 쇼트트랙의 심석희(세화여고), 피겨의 김연아 등 강력한 금메달 후보들이 포함돼 있어 소치에서도 빙상은 ‘메달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인 종목 다변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종목의 도전자들이 많이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썰매 종목이다.

봅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까지 전 종목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파워슬램(경기연맹)이 이끄는 남자 4인승 A팀과 김동현(서울연맹)이 이끄는 B팀은 13일 아메리카컵 8차 대회에서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다. 두 팀 모두 이렇게 이상

대에는 서지 못했지만,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원윤종의 A팀에 이어 김동현의 B팀도 두 차례 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손에 넣었다. 이번이 없는 한 봅슬레이에서만 11명의 선수가 소치 땅을 밟게 된다.

루지에서 사상 최초로 남녀 싱글과 남자 2인승에서 모두 출전권을 획득, 4명의 선수가 소치에 입성한다.

남자 스킨레톤에서는 유성빈(한국체대)이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한신(전북연맹)이 두 번째 출전권을 두고 마지막 경기를 벌이고 있다. 스킨레톤에서까지 2명의 출전권을 따낸다면 썰매 종목에서만 1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스키도 출전권 순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선수가 많지만 밴쿠버 때보다 많은 선수를 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까지 경기 결과로 대한스키협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로는 15명 정도가 출전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정동현(경기도체육회)이 앞장선 알파인스키에서 5명, 최재우(한국체대)가 기대주로 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4명의 출전이 기대된다. 이재원이 견재한 크로스컨트리와 김호준(CJ제일제당)이 활약하는 스노보드, 영화 ‘국가대표’로 익숙한 스키점프에서 각각 2명씩 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애슬론에서는 이인복과 문지희 등 두 명이 소치 설원을 누빌 예정이다. 올림픽에 나서 본 일이 없는 한국 컬링도 이번 대회에 여자 대표팀 5명이 출전권을 따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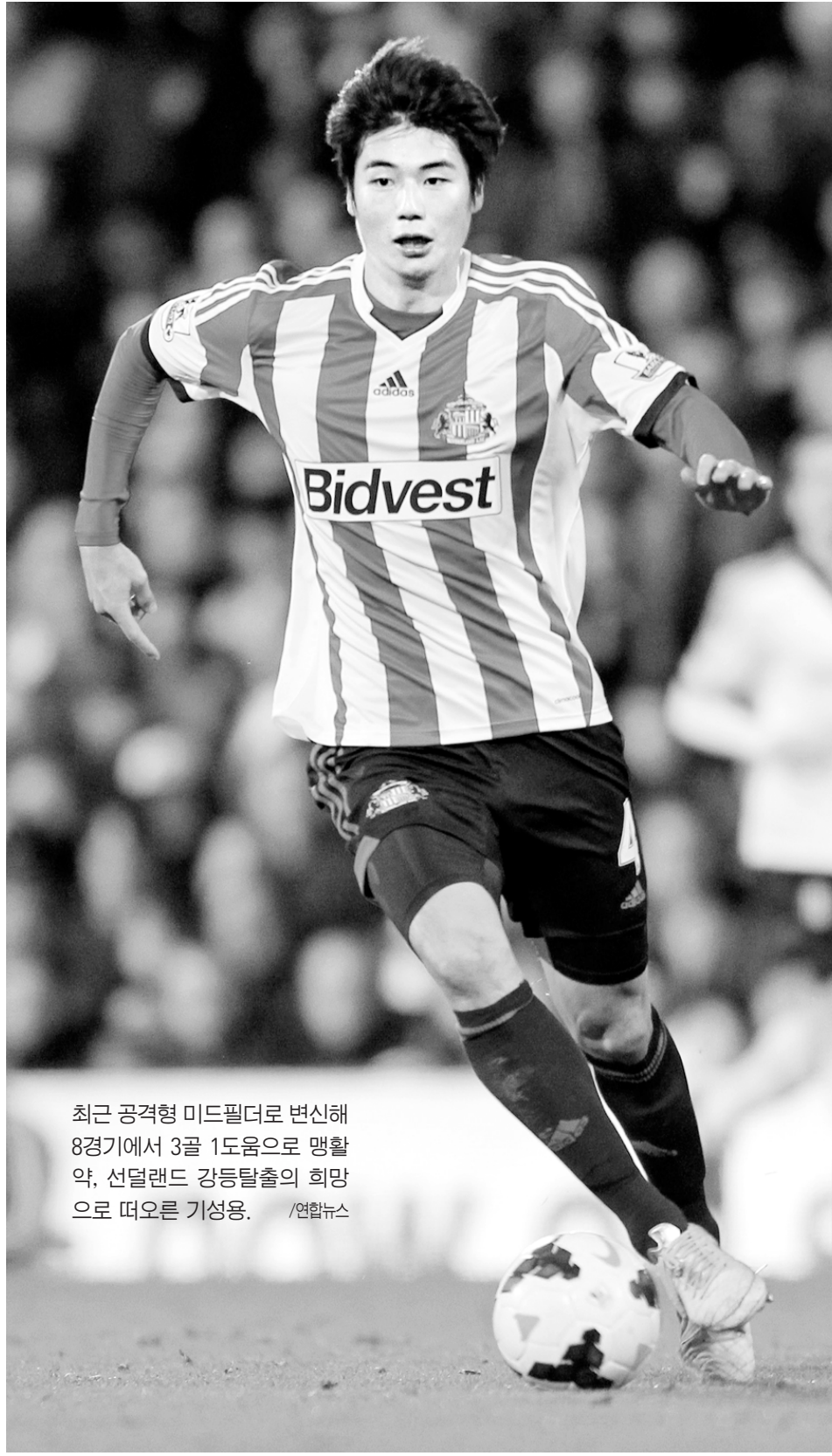


13일 겨울 전지훈련을 마친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 해의 및 섬은 개개 불가합니다. (옥지만 기능)
- 1월 16일(목)**
▲블랙야크 100대명산탐방 11월16일(목) 진안 구봉산, 07:30 영주상무정전내려, 07:40 교원공재, 07:50 문예후문, 08:00 동광주블랙야크 * 다음카페 및 블로그 올블랙야크로보안신청 ☎ 010 3619 3533
- 1월 17일(금)**
▲광주철도산악회 1월17일(금) 태백산 눈꽃산, 07:30 영주체육관(광주), 비엔날레주차장(경주) * 다음카페 광주주요산악회 ☎ 010 3608 4267, 010 3641 6153
- 1월 19일(일)**
▲광주한민산악회 1월19일(일) 내장산 원적골 자연탐방로, 광주역 앞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경주) * 다음카페 광주주요산악회 ☎ 010 3620 2002
- 1월 20일(월)**
▲문흥백두산악회 1월20일(월) 지리산 만복대 눈꽃산행, 07:30 문흥동백두산악회, 07:35 북구마래이동행, 07:45 일곡동우체국, 08:00 비엔날레주차장도로가구 도로유청장으로 * 다음카페 문흥백두산악회 ☎ 010 3602 2098
- 1월 22일(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1월22일(수) 해남 달마산, 08:00 영주체육관, 한동 중심사입구역, 문예회관, 동광주예당프라자 경유 *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 1월 22일(수)**
▲요산회 1월19일(일) 남덕유산 눈꽃산행, 무기사

- 06:00, 문예정문 06:05, 광주역광장 06:20, 동광주예당프라자 06:30 * 다음카페 요산회 참조 ☎ 010 5152 2629, 010 3606 4366
- 1월 23일(목)**
▲광주철도산악회 1월23일(목) KTX와 ITX타고 떠나는 화천 산천어 축제, 07:30분 광주역 출발 ☎ 515 7788, 010 9715 1000
- 1월 24일(금)**
▲광주세무대산악회 1월24일(금) 경남 거제시(계룡산), 박문동 부원자동차공업사 07:30 출발, 광주역 08:00, 문예체육관 후문 08:10 * 다음카페 세무대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 1월 25일(토)**
▲광주세무대산악회 1월25일(토) 전라북도 무주 덕유산, 영주체육관부근 상무정 앞 07:00, 무기사 07:10, 문예정문교차로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주요산악회 ☎ 010 3621 7821
- 1월 25일(토)**
▲광주요산회 1월25일(토) 화천 산천어 축제 버스여행, 00:00분 광주역 광장 출발 ☎ 515 7788, 010 9715 1000
- 1월 25일(토)**
▲광주요산회 1월25일(토) 한라산 눈꽃산행 * 다음카페 광주요산회 ☎ 010 3602 4216, 010 8743 8244
- 1월 25일(토)**
▲광주철도산악회 1월25일(토) KTX와 ITX타고 떠나는 화천 산천어 축제, 07:30분 광주역 출발 ☎ 515 7788, 010 9715 1000
- 1월 26일(일)**
▲요산회 1월26일(일) 지리산 비래봉 만복대 눈꽃산행, 무기사 06:00, 문예정문 06:05, 광주역광장 06:20, 동광주예당프라자 06:30 * 다음카페 요산회 참조 ☎ 010 5152 2629, 010 3606 4366



최근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해 8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맹활약, 선덜랜드 강등탈출의 희망으로 떠오른 기성용. /연합뉴스



포에트 선덜랜드 감독의 애절한 기성용 사랑

“KI, 완전 이적 해줘”

스완지서 ‘임대 신분’ 복귀할까 가슴 졸여 내가 원하는 축구 해줘 다른 선수들의 모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구스타보 포에트(47·우루과이) 감독이 ‘임대 신분’인 기성용(25)을 완전 이적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에트 감독은 13일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용을 스완지시티로부터 완전히 이적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스완지시티에서 1년 임대로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은 기성용은 12월 치러진 풀럼과의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1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이번 승리로 선덜랜드는 정규리그 20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올라가며 지긋지긋한 꼴찌 탈출에 성공했다.

포에트 감독은 “부상자가 많이 생긴 스완지시티가 기성용을 일찍 복귀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스완지시티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을 많이 졸였다”고 밝혔다.

그는 “선덜랜드의 최근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기성용과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성용이 최근 축구 자체를 즐기고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선수들도 기성용처럼 정신을 무장시킬 바란다. 그는 내가 감독을 맡은 이후 가장 기록 없이 꾸준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다른 선수들 사이에 모범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기성용은 그동안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등 수비적인 포지션을 맡아오다가 최근 포에트 감독의 뜻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해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달 18일 첼시의 캐피탈원정 8강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이후 풀럼전 득점까지 제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8경기에서 3골 1도움(정규리그 2골 1도움, 컵대회 1골)의 맹활약을 펼쳤다.

‘흥미진진’ 프로농구 역대 최대 120만 관중 노린다

13일 현재 72만3865명

프로농구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중 숫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13일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 따르면 4라운드가 진행 중인 2013-2014 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관중은 166경기를 치른 현재 72만3865명으로, 시즌별 동일 기간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의 166경기 기준 최대 관중이던 지난 시즌의 69만2087명보다 4.6% 증가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라운드에서

3866명에 그쳤지만 2라운드 4213명, 3라운드 4525명, 4라운드 5054명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맹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11-2012 시즌에 기록한 정규리그 역대 최대 관중 119만 521명을 넘어 1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

대했다. 팀별 흥경기 관중을 보면 19경기를 치른 창원 LG(10만3211명)가 유일하게 10만 명을 돌파해 최고 인기 구단임을 과시했다. LG는 또 프로 출범 후 199만4376명의 관중을 끌어들이는 이달 내에 한국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구단 누적 관중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SK는 지금까지 홈 경기가 13경기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었지만 8만288명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moviehelix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2014년 가장 유쾌한 한류 제1호 사기꾼이 인연이 개가 된다

문 의 : 062-223-0672

롯데시네마 구제일극장

1관	변호인
2관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3관	변호인
4관	용의자
5관	플랜맨
6관	타잔/포켓몬스터 신의속도/엔더스게임
9관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바타 3D/플랜맨/변호인/용의자

대표전화 : 070-4940-0523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텔로
논인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감입없이 살아나는 운명의 드라마

“오텔라와 발레를 스크린으로 만나다”

ARS : 1544-0070 SMS : 1666-9570

당신의 꿈을 개봉합니다
MEGABOX

M관	변호인	오텔라를 스크린으로 만나다
2관	플랜맨	
3관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상영일 및 시간상영작
4관	아바타 3D/엔더와 마법저택	
5관	용의자	1월 18일 (16시)
6관	용의자/엔더와 마법저택	
7관	타잔/플랜맨	
8관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엔더스게임	오텔라 "오텔라"

Table M관 변호인

제휴주최장 - 3시간 무료 : 황금주지빌딩, 호남주지타워 - 3시간 1,500원 유료 : 지어주지장

한도사영 영화사
콜롬버스시네마

현상상영작	금주개봉작
변호인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저스틴 용의자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타잔	노에크트, 뮤츠의각성
	엔더와 마법저택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주말에 현대M포인트 1인 4000포인트씩
2인까지 8000포인트 사용 (현대M카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1544-0070

노르코 6-6-1-4-99계별도 안내를 따라가며 노르코

한도사영 영화사
콜롬버스시네마

1관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관	호빗/점오로가는길
3관	변호인/타잔
4관	변호인
5관	타잔/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6관	변호인
7관	플랜맨
8관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게노제크트, 뮤츠의각성/용의자
9관	엔더와 마법저택/플랜맨
10관	용의자

문 의 :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